



“까~악!” 뒤돌아보니 남자아이들이 지르는 소리였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의 어린이들에게는 물론, 여기 이사말에 사는 아이들에게도조차 그렇게 좋은 선물이 아니었지만, 시골교회의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소리를 지를 만한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씀을 체험하기에 충분한 발걸음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출발할 때에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시골교회 아이들의 반응을 보면서, 오기를 잘했다는 듯한 표정의 얼굴들이었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뽀얏 아카데미의 학생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나누며 살 수 있도록, 특히 예수님을 통한 복음을 나누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감사의 조건들이 참 많은 한 해였습니다. 특히 다른 학교에서는 시행하지 않은 ‘현장 및 비대면’ 수업을 동시에 할 수 있었던 것은 크나 큰 기쁨이었습니다. 인근 도시는 물론, 유카탄 주의 수도인 메리다에 있는 한 신학교에서도 견학을 올 정도로 차질없이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터넷과 네트워크 시설을 미리 설치하고 잘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유발된 ‘비대면’ 수업의 필요성을 접하면서, 앞으로 그 필요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메타버스’ 등 질 높은 비대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야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기도를 부탁드린 것이지만, 지혜가 부족한 저에게, 이런 교육체계를 수립하고, 양질의 교육 infra를 갖출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유카탄 미션캠프는 7월 15일(금)부터 23(금)까지 ‘변화’라는 주제로 열리게 됩니다. ‘오미크론’이라는 변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모두 긴장하고 있지만, 감염력이 높아진 반면, 치사율은 많이 낮아져서 올해 여름쯤에는 감기 정도의 바이러스로 약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기 이전, 유카탄 미션에 참석하려고 했던 많은 청소년들을 비롯해, 미국과 멕시코 지역의 교회들이 위축된 몸과 맘을 펴고 담대함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더욱 강력한 기도가 요청됩니다.

지난 한 해 New Generation Church 는 코로나 때문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정기적으로 모이기 시작했지만, 참석하는 교인들의 수도 적을뿐더러, 고정적으로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사람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교인들을 양육하고 섬길 수 있는 전임 사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심방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 예배와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현지인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람직하기는, 뽀엘 아카데미 인근에 사는 학생들과 그 가족들이 참석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는 것이지만, 전임 교역자가 없는 현재 상태로는 현상을 유지하는 것도 버겁습니다. 뽀엘 아카데미에서 복음을 들은 학생들을 New Generation Church 에서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New Generation 교회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부쩍 ‘시간’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나이를 먹는 모양입니다. 지체치 않고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빨리 오시면 안되는데…” 하는 생각 또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사말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뽀엘 아카데미에서 섬기는 동안 이사말에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는 것이 소원이고, 그래서 뽀엘 아카데미의 학생들이 불쏘시개가 되어 이사말이 복음화 되는 것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이사말, 유카탄 멕시코에서 / 지용한 경애 선교사

기도제목

감사: 담낭 제거 수술 후, 후유증 없이 회복하고 있는 것.

-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한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 뽀엘 아카데미에서 ‘예수’의 복음이 지혜롭게 선포될 수 있도록. New Generation 교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 쉬지 말고 기도하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 피로를 잘 회복하고 지혜롭게 섬길 수 있도록

사진설명

시골교회를 방문,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누어 주고 있는 벤엘 학생들

학생들과 함께 Thanksgivings Tree 의 앞사귀에 적혀 있는 감사의 조건들을 읽고 있는 이철남 선교사

유카탄 미션 스태프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 (ㅎㅎ 아무도 마스크 안했네요)

토요일 저녁 모여 예배 드리고 있는 New Generation Church 청소년들